

민주, 영남권 장외집회… 정당공천 폐지 압박

부산 결의대회 이어 23일 의총서도 당차원 대응책 논의

새누리 “전국 단위로 확대하다니… 집회병 도지나” 비판

민주당은 21일 부산에서 기초 자치선거 공천 폐지 촉구 결의대회를 하는 등 공천 유지 방침을 정한 새누리당을 연일 압박했다. 민주당은 오는 23일에도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문제와 관련, 의원총회를 열고 당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이날 영남권 당원일동 명의로 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촉구 결의문’을 통해 “민주당은 기초선거 공천폐지가 관철되는 ‘그날’까지 반드시 해내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국민과 함께 최선을 다해 반드시 관철할 것”을 다짐했다.

민주당은 또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정치권이 다함께 실천을 다짐한 국민과의 약속이자 시대정신”이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도 대표 공약으로 내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반드시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정치개혁 성공의 시발이 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새누리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하늘이 무너져도 지키겠다’고 공언한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마저 강그리 뒤엎으며 기초선거 공천폐지 약속을 파기하고 있는 ‘나쁜 정치’의 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한길 대표도 “새누리당이 공천제 폐지를 실천하지 않으면 새누리당은 건지지도 못할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께서 ‘최악의 정치’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고 말씀하신 만큼 대통령 스스로가 최악

의 정치를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황주홍 의원이 이날 국회에서 ‘정당 공천 폐지 위한 논란에 관한 헌법학자 기자회견’을 열어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새누리당의 위헌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기우 인하대 교수

는 “헌법재판소가 정당공천 폐지를 위헌으로 판단했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면서 “정당표방 금지의 위헌 결정을 인용해 정당공천 폐지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논거로 삼는 것 자체가 심각한 사실왜곡”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카드를 들고 이틀째 집회를 계속한다고 한다”며 “집회를 계속해서 전국 단위로 확대하겠다

고 하니 민주당의 끊지 못하는 집회병이 도진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위헌 가능성이 있고 술한 부작용이 있을 게 불 보듯 뻔한 정당공천 폐지를 엄동설한 집회에서 촉구한다는 건 참으로 합리적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더구나 집회에 이번 기초선거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자 예비후보자인 민주당 소속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을 불러모으는 건 참으로 보기 민망하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金-文대화’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종식당에서 열린 상임고문단 오찬 간담회에서 문재인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상천, 권도갑, 문재인, 김한길, 김상현.

/연합뉴스

김무성 “대한민국 모든 공천은 사천”

〈私薦〉

정당공천제 강력 비판

새누리당 내 친박계 비주류의 대표주자로 꼽히는 김무성 의원은 20일 “지금껏 대한민국의 모든 공천은 사천(私薦)이었다”며 현재의 정당공천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청주 설프라자 컨벤션센터에서 창조융합교류회(회장 오성진)가 마련한 ‘명사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 “당 권력자가 배후조종하는 공천을 받으려고 비굴하게 굴고, 돈까지 가져다 바치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정당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권력자로부터 공천권을 빼앗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정당공천제의 대안으로 오픈 프라이머리(개방형 예비 경선)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이어 “여론조사를 통해 지역주민이 직접 뽑은 인물에게 공천을 준다면 내부 대립이라는 경선의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고, 정치 신인은 권력자를 좇지 않고 지역에

서 얼굴알라기에 힘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후퇴를 거론하면서 “대선 당시 참모진의 실수로 실현이 어려운 공약이 나갔지만 박 대통령의 현명한 결정으로 더 큰 피해를 막은 것”이라고 ‘두둔’했다.

이어 “현실에 맞는 복지수준이 얼마인가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지 않는 현 상태에서 과잉복지만을 내세우는 후보는 국민이 선거의 힘으로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5선의 김 의원은 친박계 원로인 서청원(7선) 의원과 함께 유력한 새누리당 차기 당권 후보로 꼽히고 있으나 이날 특강에서는 당권과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최경환 “기초연금·北인권법 꼭 처리”

새누리, 2월국회 운영 전략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1일 2월 임시국회 운영과 관련, “기초연금법을 반드시 처리해 7월부터는 어르신들께서 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설 명절이 끝나면 바로 국회를 열 수 있도록 야당과 협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북한 동포의 인권을 담보하는 북한인권법도 반드시 처리해야 할 중점 법안”이라며 “야당도 연초부터 이 법안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밝힌 만큼 이를 실천에 옮기도록 하려던 민주당도 전향적 입장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자력안전법을 처리해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원전비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최 원내대표는 “카드사 정보 유출에 대한 근본 대책과 AI(조류 인플루엔자) 피해 농가 대책도 철저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 영리와 논란에 대해서는 “의료 영리화는 민주당 의료영리화저지특위 위원장인 김용익 의원이 ‘노무현 정부’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으로 진두지휘했던 정책”이라며 “의료 민영화·영리화 논란의 원인을 가진 집단과 장본인이 의료 영리화와 아무 상관없는 박근혜정부 정책에 올라미를 씌우는 후안무치한 짓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민주당의 얼굴 바꾸기는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제주 해군기지 건설, 철도 민영화 등 쉴 수도 없을 지경”이라며 “민주당의 ‘그때 그때 달라요’가 더는 놀라운 사실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이윤석 민주당 수석대변인 인터뷰

“국민-당-언론 가교 역할 충실

폭넓고 진솔한 목소리 듣겠다”

“앞에 나서지 않고 조용히 언론과 민주당, 국민과 민주당의 가교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최근 민주당 수석대변인에 임명된 이윤석 의원은 21일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요직을 맡게 돼 책임이 무겁다”며 이같이 다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대변인은 말을 하는 자리이지만 또 잘 들어야 하는 자리이기도 하다”며 “400여명에 이르는 국회 출입기자 등 다양한 언론인의 목소리를 국민의 목소리로 알고 그 목소리를 듣는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선 때부터 대변인을 원해왔는데 간절히 바랐더니 이뤄졌다”며 “넉넉치 않게, 성실히,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잘했다는 소리를 듣는 대변인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부대변인단 등 대변인실 모든 인원이 노력하고 강해서 마음이 편하다”며 “직접 마이크를 많이 안 잡고 대변인단 뒷바라지를 한다는 생각으로 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또 “지역구 활동과 전남도당위원장으로서의 역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설 이후 민주당 권도갑 고문 등이 참석하는 위

기의 민주당을 구하기 위한 대규모 강연회를 광주에서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도의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치에 뛰어든 이 수석부대변인은 제7대 전남도의회에서는 최연소 도의회 의장을 역임했으며 제18대 총선에서는 무안·신안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 당시 현역 국회의원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의원을 꺾어 과란을 일으켰다.

이어 제19대 총선에서는 ‘리틀DJ’로 불리며 새천년민주당 대표를 지냈던 한화갑 후보를 누르고 재선 고지에 올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송경중 광주시의원, 민주 탈당 安신당으로

광산구청장 출마

민주당 소속 송경중 광주시의회 부의장이 21일 민주당을 탈당하고 안철수 신당 참여 의사를 밝혔다.

송 의원은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민주당은 거대 야당이면서도 뿌리 깊은 계파주의 폐해로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정권교체의 희망도 만들지 못했다”며 “시대의 요청인 정권교체의 기틀을 마련하고 호남 소외 극복의 초석을 다지겠다”며 민주당 탈당 입장을 밝혔다.

송 의원은 이어 “안철수 신당과 함께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산구청장 출마를 선언한 송 의원은 이용섭 국회의원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분류돼왔다. 따라서 송 의원의 탈당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일각에



서는 이 의원과의 불화설이, 일부에서는 송 의원이 민주당 소속 민형배 광산구청장과의 경선 경쟁이 어렵고 지역위원회에서 입지가 좁아져 탈당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일부 오해가 있지만 멀리 보고 정치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광주시당은 송 의원의 탈당과 관련한 성명을 내고 “송 의원은 민주당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정치인 중 한 명으로 이번 탈당은 명백한 배신행위이며, 자신의 정치적 입지만을 염두에 둔 행위로서 ‘새 정치’로 포장될 수 없는 구태의 전행으로 반드시 시민과 당원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오피스텔” 매매

1. 수기동 제일 OP 13층 53평
2. 창가, 코너, 전망 좋음
3. 주거겸 사무실, 전체 올수리
4. 시세/분양가 - 2억 5천만원 정도
5. 매매가 - 1억 5500만원

경매투자

1. 특수비법 배우실 분!
배우면서 투자 가능
교육비 1,200만원
2. 경매에 투자 하실 분!
수익률 연 20% 보장
투자금 1억원 이상
3.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컴퓨터등 정보 제공
연회비 1,200만원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